# 광주학생운동 진원지 옛 나주역에 태극기 휘날린다

## 나주시, 26~27일 태극기거리 축제
## 항일운동 재조명·죽림동 활성화
## 나주역 사건 창작 공연·퍼포먼스

26일과 27일 이틀간 옛 나주역 일원에서 '제2회 태극기 거리 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항일운동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태극기 거리 축제'를 연다.

나주시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지 옛 나주역 일원에서 '제2회 태극기 거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인 옛 나주역은 일제강점기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일본인 학생이 광주여고보에 재학 중이던 이광춘·박기옥 등 여학생을 희롱한 일명 댕기머리 사건이 발단이 됐다.

광주발 통학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할 때까지 희롱이 이어지자 이에 분개한 한국 남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충돌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11월 3일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 독립운동이 전개됐다.

2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죽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주관으로 학생운동길 역사 복원에 따른 항일운동 역사 재조명과 옛 나주역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그 날의 함성, 하나 되어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학생운동 완전정복(O·X 퀴즈) 및 우리말 죽림픽 ▲나주시민노래자랑 ▲태극기 퍼포먼스 ▲댕기머리 체험 ▲옛날 태극기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전시·홍보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축제 첫 날에는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나주역 사건을 주제로 창작 공연과 하나 된 나주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개막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나주역 독립운동 포토존, 통조림 타임캡슐 만들기, 댕기머리 체험 등 근현대 역사문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7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죽림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는 축제장 곳곳에 안전관리요원 30여명을 배치하고 백신접종 확인에 따른 출입 통제와 거리두기, 취식 금지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태극기 거리축제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나주학생독립운동 진원을 기념하고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이자 주민 화합을 통해 죽림동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죽림동은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복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해 '학생 운동길 역사문화거리', '청춘 스트리트몰', '나주문화예술 소통 창작소', '댕기머리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담양군, 산타축제 취소
## 코로나 지역 감염 예방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연말 개최하려던 산타축제를 취소했다.

담양군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여 지역 감염 위험성을 예방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대표축제인 산타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산타축제는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 산타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해 2019년까지 3차례 개최됐었다.

군과 축제추진위원회는 올해 산타축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고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와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위주로 설치됐던 경관시설물을 관광지 곳곳으로 확대,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서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주말에는 메타프로방스와 죽녹원 앞 영산강문화공원에서 버스킹 공연과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내년엔 산타축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청정 힐링 여행 1번지'
## 강진서 푸소체험 어때요
## 군, 서울 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

강진군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1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강진군 주요 관광지와 대표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강진 푸소체험, 강진에서 1주일 살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청정 힐링 여행 1번지'라는 주제로 강진을 소개하고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과 19일에는 서울 용산역 내에서 푸소체험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강진 특산물인 쌀귀리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강진 푸소체험 소개도 병행했다.

최근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광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통한 단체방문이 많아지면서 강진만생태공원,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진 푸소체험은 소규모 일반인 체험과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22개 학교, 4500여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하세월에 장성군민 뿔났다
## 신속 설립 촉구 전군민 궐기대회
## 예산 43억7000만원 불용조치
## 대책위 구성 질병청 항의시위도

장성군민들이 22일 오전 장성역 앞 광장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촉구하는 전 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민들이 22일 장성역 앞 광장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촉구하는 전군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추진 장성군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유두석 장성군수, 임동섭 장성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단체대표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성군은 14년 전인 2007년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1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예산 43억7000만원에 대해 사전절차 등을 이유로 불용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전남도가 협력해 적극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성군민들도 지난 15일 즉각 대책위를 구성하고 청와대와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항의시위를 한데 이어 이날 전군민 궐기대회를 통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의지와 결속력을 다졌다.

대책위 반강진 공동위원장은 "장성군민이 14년 동안 꿈꿔왔던 국립심뇌혈관센터가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전남 상생공약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약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 5만 장성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전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궐기대회를 주관한 대책위는 추후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촉구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새마을회
## 김장 1만 포기 나눔행사

(사)나주시새마을회(회장 신성수)는 22일 20개 읍면동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愛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나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나주시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나주시협의회, 새마을 문고가 각각 주최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새마을 단체들은 1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궈 관내 저소득층과 시설에 나눠줄 계획이다.

신성수 나주시새마을회 회장은 "매년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궈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의 기틀을 다졌듯이 이제는 상생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해 회원 모두가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